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해서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노미라 집사님 아버님이신 노완철 님께서 지난  
토요일(10 일 한국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7 년 6 월 안내: 이향복/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서현숙 권사/시편 116:1-2, 12-19  
 이번 주 친교: 서현숙/이미경 집사  
 다음 주 친교: 강승연/이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6월 11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64 장(통 13 장) 다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8 편 서영수 집사

찬양(Choir) “주님의 크신 은혜”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6:11-18 인도자

설교 (Sermon) “큰 글자로 쓴 사랑”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151 장(통 138 장) 다함께  
“만 왕의 내 주께서”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6. 4. 주일 설교 요약

때가 이르매 (갈 6:6-10)

지난 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돕고 나누는 것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마음과 시간과 기도를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가치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도 “속이지 말라”고 “육체로 심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섬기는 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도, 이웃이 살찌지도 않는 헛된 일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짐을 거둡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마 6:1-6).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의 통로요, 구제는 이웃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인데, 외식하는 자들은 교만과 위선이라는 헛된 육체의 열매만을 거둬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웃을 위해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는 영생의 열매가 따릅니다.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외치는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섬김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져서 이웃을 살찌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열립니다. 씨를 심은 사람은 자라서 거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 거룩을 향한 변화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정해졌습니다.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때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는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말이 “때가 이르매”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일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섬김과 선한 일은 적당한 때를 기다려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은 것은 예수께서 씨앗처럼 죽어짐으로 열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씨를 심어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향해, 구원을 향해 애써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워지기를 기다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안식함으로 힘을 얻어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금 질 때 예수께서 함께 멩애를 매주시며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신 회복과 평강과 치유와 안식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합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